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도연 소설가

10월로 접어들기 무섭게 올해도 어김없이 휴대전화 화면에 익숙한 문자가 떴다. '부족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00초등학교 동문체육잔치를 선후배 동문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랜 불경기와 침체된 사회분위기, 또 어떤 이유로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오셔서 고향과 동문의 정을 함께 나누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푸른 하늘을 쳐다보다가, 올해는 유난히 붉은 매일 저녁의 노을을 훑쳐보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문자가 바로 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온 소식이다. 오래 전에 졸업한 학교로 놀러 오라는 소식, 학교는 왜 자꾸만 우리를 부르는 것일

학교는 어디에 있는가

까. 학교는 대체 무엇일까. 떠나온 학교를 떠올리면 마음이 따스해지는가, 아련해지는가, 얼굴이 화끈거리는가. 당신은 어떤 경우인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학교 따윈 두 번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가.

떠나온 학교를 생각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선생님인가, 친구인가, 좋아했지만 한 번도 좋아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던 그 누구인가. 학교는 왜 우리들 각자의 기억 속에 애증으로 자리 잡은 채 틈이 날 때마다 부르는 것일까. 마치 당시에 마무리하지 못한 오래된 숙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참 우리 인생에서 학교는 많고 많다. 이 네 개의 학교를 모두 지나오려면 자그마치 16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쩌면 학교는 우리들의 또 다른 고향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다. 그러하기에 지나온 학교들에서 부르며 그때마다 민망이 교차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철수는 왜 거의 매일 지각을 한 것일까. 그 선생님은 풍금도 칠 줄 모르면서 어떻게 매번 음악시간을 진행했을까. 길동이는 나머지수업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었

을까. 그 선생님은 왜 그렇게 무뎠을까. 만동이는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면서 기분이 좋았을까.

그 어여쁜 처녀선생님은 산골마을에 부임해와 살면서 동네의 시커먼 총각들이 득실거리는 밤이 두렵지 않았을까. 지린내가 진동하던 화장실은 왜 그리 무서웠을까. 학교는 어떤 이유로 대부분 공동묘지 자리에 지어서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까.

초등학교 시절은 그래도 아름다웠다. 중학생이 된 남학생들은 나이를 조금 먹었다고 점점 거칠어졌고 여학생들은 말이 없어졌다. 선생님들도 초등학교 때와 판이하게 달랐다.

여러 초등학교에서 모인 남학생들은 힘을 겨루려고 특하면 싸웠다. 가을을 했다가 접혀왔다. 선생님들의 품동이 굵기면 학교는 우리들의 또 다른 고향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다. 그러하기에 지나온 학교들에서 부르며 그때마다 민망이 교차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와중에도 사촌기로 접어든 남학생들은 젊은 여선생의 치마와 가슴을 훑쳐보며 여드름을 키우고 쩀다. 전남 술을 많이 마셨는지 자습을 시키는 선생이 허다했다.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고 모든 학생들이 그랬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다. 학창시절의 기억이란 건 늘 어느 한쪽에 편중돼 있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의 기억이 그나마 아름다운 편에 속한다. 고등학교와 대학은 슬슬 세상의 전쟁터로 발을 들이게 되는 것일 테니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어떤 철수, 길동이, 만동이들이 있고 어떤 선생님들이 교단을 지키고 있을까. 왕따나 자살이니 하는 말들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어떤 당부의 말을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일까.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을 보듬으며 학교로 가는 것일까. 지금의 학교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마음 아픈 아이를 교정의 울타리 밖에서 홀로 울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 옛날의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도 모른다. 깊어가는 가을의 동문체육대회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봐야겠다. 미안하다는 말을 호주머니에 준비해야겠다. 그런데 정녕 학교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의료칼럼

손상되면 회복 어려운 목 건강



김수한 광주새우리병원 원장

하고 있다.

추간판의 중앙부는 80%가 수분으로 구성된 젤리 모양의 수핵으로 구성되고, 이 수핵을 여러 층으로 이뤄진 섬유륜이 주위를 동글게 감싸고 있다. 이들은 다시 연골종판, 인대와 연결되어 상·하 척추뼈에 부착된다. 이런 추간판들은 각각의 척추뼈들 사이에 위치하면서 척추뼈 상·하는 물론 전·후·측방 사방에서 가해지는 각종 하중과 충격을 흡수해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준다. 또한 척추 뼈가 밀리지 않고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쿠션처럼 척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와 역할을 하는 추간판은 2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핵과 섬유륜의 수분이 점차 감소하면 탄력성이 떨어진다. 또한 수핵이 단단하게 변하고 섬유륜에 균열이 발생해 약해지는 노화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나쁜 자세나 반복적인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추간판 내부 수핵이 섬유륜을 부분적으로 밀고 나오거나, 섬유륜을 뚫고 밖으로 터져 나와서 주변

신경을 압박·자극하게 된다. 그 결과 압박된 신경이 분포하는 팔이나 발에 방사통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추간판의 수핵이 섬유륜을 비정상적으로 밀고 나와 탈출된 상태를 '추간판 탈출증', 간단히 디스크라고 하고, 경추에서 발생하면 경추간판 탈출증(목 디스크), 요추부에서 발생하면 요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이라고 한다.

60세 이상의 성인이 퇴행성변화가 더 진행되면 이러한 경추간판 탈출증이 여러 부위에서 발생, 진행되면 경추관 협착증으로 이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추관 협착증은 퇴행성변화로 인한 경추간판의 노화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에서 발생하면 요추관 협착증이라 하고, 목에 발생하면 경추관 협착증이라고 한다.

최근 유행처럼 번진 근육질 몸매 열풍 때문에 단기간에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젊은 나이에 너무 무리한 운동을 반복하는 것은 척추노화(퇴행성변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목을 굽고 있는 것과 같

은 잘못된 자세, 과도한 허리나 목의 사용이 척추노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척추관 협착증은 추간판의 퇴행변화에 의한 노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목나이가 들어야만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척추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면 노화가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다. 경추부는 요추부와 달리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척추신경이 한번 손상되면 현대 의학으로는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때문에 손상돼 마비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허리디스크와 요추관 협착증의 초기 증상이 비슷해 구분이 쉽지 않은 것처럼, 목 디스크와 경추관 협착증의 증상도 매우 유사하나 자세히 관찰하면 구별이 가능하다. 경추간판 탈출증(목디스크)이 있을 때의 통증 및 감각 이상은 진행 속도가 빠른 것에 비해 경추관협착증에 의한 증상은 서서히 진행된다. 목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혼자서 판단하기 보다는 신속히 전문병원을 찾아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기고

'이서 적벽' 개방, 상생의 문을 활짝 열다



임희진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기업적벽이 빚어내는 총 길이 7km의 비경은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동복댐이 만들어지면서 절반가람이 물에 잠겼지만 그 절경은 살아있다.

댐이 없던 6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지역민이 적벽을 찾아 동복천에 배를 띄우고 물놀이와 낚시를 즐겼다. 그러나 1973년 광주시민들의 상수원으로 동복댐이 건설돼 16개 마을과 함께 수돗물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42년간 실랑이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닫혀있던 적벽이 광주시와 화순군의 상생 합의로 42년 만에 시·도민들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광주시와 화순군은 광주·화순의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6일 윤창현 시장과 구충근 군수가 만나 협약을 맺었고, 23일에는 시도민의 화합의 장으로 열리는 적벽문화제와 함께 개방행사를 열 예정이다.

전남도기념물이자 광주시민의 상수원인 이서적벽의 개방은 단순한 개방 이상

의 의미가 있다. 적벽개방에 따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개방하기로 한 것은 큰 틀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적 욕심을 초월해 광주·전남의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광주·전남은 근대 이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됨으로써 수도권, 영남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되었고, 최근에는 지역산업개발, 인재응용에서 '뒤처진 현상'의 고착화 경향마저 나타나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서적벽 개방은 광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시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실생활과 밀접한 작은 사업 공동 협력'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광주 인근의 나주·장성·화순·담양·함평 등 5개 시군과의 협력 사업들, 예컨대 화순은 무등산국립공원·상수원 문제, 담양은 가시문화권 협력 모델, 장성은 군

부대 이전 문제, 나주는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등 공동협력 프로젝트 중 첫 성공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광주시와 화순군의 협력프로젝트를 기화로 광주시와 화순군은 앞으로 공동 추진해야할 무등산권 환경보존과 관광자원 활용방안,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전당·화순 주자묘 옆에 천중문 화관광관테츠 개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화순군 경기시설 활용 등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한 협력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이 한 뿌리라는 역사적 사실을 받들어 광주와 인접 5개 시군은 세심한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과 상생의 모델을 만들고, 더 나아가 광주와 전남의 공동발전과 상생에 위한 현안 사업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관계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찾는 모습을 기대한다. 행정가들도 시·도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면 한다.

社說

성 범죄와 사고 위험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학교 주변에 성 범죄자가 활보하고 있지만 CCTV나 경비 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통학버스 상당수는 금방이라도 멈출 정도로 낡았다. 불안한 학교, 아이들이 성 범죄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 많은 성 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범지역에 위치해 CCTV 등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광주의 학생안전 강화학교 50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변 1km 내에 성 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성 범죄 전력자는 모두 273명이었다.(초등학교 1개교당 5.4명, 중학교 5.9명)

특히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2곳에는 주변에 성 범죄자가 10명 이상이나 있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가 무려 12명이 나 됐다. 전남은 초등학교 89곳 중 43

곳, 중학교 23곳 중 12곳 등 절반 가량의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학생안전강화학교 내 안전시스템은 매우 취약했다. 시스템 구축 대상 학교 중 아간 범죄를 감시하는 적외선 CCTV 보유율 50% 이상은 광주 12곳(24%), 전남 44곳(39.3%)에 그쳤다. 전남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비 인력을 배치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

통학버스도 노후돼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다. 안홍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통학버스 66대 중 27대가 폐차 기준인 20만km 이상을 운행했다. 심지어 70만km를 넘은 차량도 있었다.

교육당국은 문제가 있는 학교와 협의해 고물 통학차부터 바꾸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경비인력 보강과 CCTV 확충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쳐야 어찌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U대회 선수촌 사용료로 362억 원 달라니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개최를 9개월여 앞둔 광주시가 화정동 재건축 아파트의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조합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합에서는 선수촌 사용료로 3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요구한 반면 광주시는 과도한 금액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대외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U대회 기간 전후의 선수촌 사용료와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362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조합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입주자 시작되는 2016년 1월까지 최소 11개월치의 사용료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선수촌을 내년 5월부터 9월 초까지 사용하는 만큼 리모델링 비용까지 가산해 362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 선수촌 사용 뒤 리모델링 기간을 무려 6개월 이상으로 잡은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합 측이 나름의 계산을 통

해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의 다른 국제대회 선수촌 사용과 비교할 경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끝난 인천 아시아게임 선수촌 사용료가 35억 원, 지난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와 2003년 대구U대회 사용료가 각각 11억2000만 원과 36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시의회, 사회단체 등의 반발에도 광주시가 미분양 물량 책임 보증, 건축사업 지연 비용 보전 등 이른바 특혜성 지원을 한 만큼 조합 측이나 시공사도 시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수촌 사용료는 타지역 등 전체적인 틀에서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이를 두고 법적 분쟁 등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국제대회를 앞둔 광주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재정·행정적 특혜를 주고서도 불상사를 빚게 된다면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無等鼓

최근 우연히 열세 살 때의 내 모습을 확인했다. 국민학교 동창회 '밴드'에 들어갔더니 누군가 졸업앨범 속의 단체사진을 올려놓은 것이다. 나인 것 같은데 나 같지 않은, 그러나 나일 것이 분명한, 옛날 모습의 낯선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사진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사진은 우리 모두의 역사이며 기록이다. 사진이 있어 우리는 예전의 함들었거나 혹은 행복했던 순간들로 잠시 되돌아갈 수 있다.

폴리처상 사진전 (11월30일까지, 광주 문화예술회관) 또한 타임머신이 되어 우리

한 장의 사진

를 과거의 한순간으로 안내한다. 폴리처상은 헝가리 출신 언론인 폴리처의 유산을 기금으로 만든 상인데 미국 신문사 소속 혹은 미국인만 수상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베트남의 한 마을, 21살의 젊은 사진기자 앞으로 한 소녀가 뛰어오고 있었다. 네이팜탄 폭격으로 인해 불이 옮겨붙은 옷을 벗어 던진 채 발가벗은 모습이었다. 이 사진을 찍은 호찌민 출신 닉 우트(63)는 1973년 폴리처상을 받았다. 앞서 우트의 형 역시 AP통신 사진기자로 베트남전에서 전사했고 그는 죽은 형의 후임

으로 16살에 사진기자가 됐다. 케빈 카터의 '독수리와 소녀'도 노리에서 오래 떠나지 않는다. 땅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소녀 뒤에 독수리 한 마리가 소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이를 본 사람들은 "굶어 죽어 가는 소녀가 독수리의 먹잇감이 될 때까지 사진 찍는 데 몰두했다"며 카터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는 잠시 아이를 땅에 내려두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비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UPI 통신의 사와 다는 포탄을 피해 물을 헤쳐 나오는 베트남 가족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그는 이후 이 사진 한 장만 들고 가족들을 찾아 나섰다. 결국 찾아냈고 가족들에게 삼김의 절반을 나눠 주었다.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라는 말을 남겼던 그는 4년 후 캄보디아 전쟁을 취재하러 나섰다가 곧바로 목숨을 잃었다.

그들이 죽을마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사명감 때문이다. 때로는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다 말해 주기 때의 형 역시 AP통신 사진기자로 베트남전에서 전사했고 그는 죽은 형의 후임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